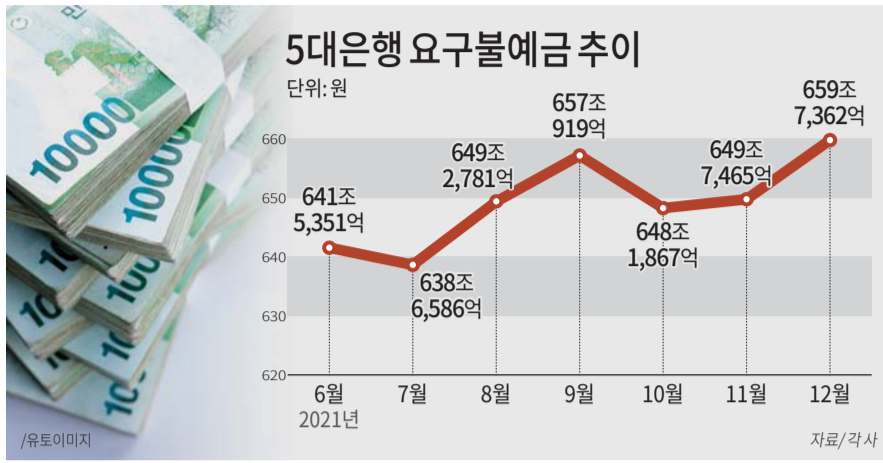


“주식·코인 불안한데...” 뭉치돈, 은행으로 ‘역 머니무브’

시중銀, 정기예금잔액 급증
주식·코인·부동산시장 주춤
기준금리 인상에 유입 늘 듯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하면, 은행의 예금 금리도 추가로 오를 전망이다여서 당분간 정기예금 풀림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12월 기준 659조 7362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조 9897억 원 증가했다. 요구불 예금은 정기예금과 달리 수시로 입출금한 예금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이 대표적이다. 연



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예금이기에 때문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일정기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잔액도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12월말 기준 정기예금잔액은 654조 9359억 원이다. 지난해 최저 수준이었던 4월말(614조 7991억 원)과 비교하면 40조 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는 이유는 주식, 코인, 부동산 부문의 수익률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하면 요구불예금 등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지만 조정기간이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정기예금 등 보다 만기가 긴 상품에 돈이 몰린다.

지난 10일 코스피지수는 28.17포인트

(0.95%) 하락한 2926.72로 마감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우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공포 등의 영향으로 3000선을 밑돌고 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월 26조 4800억 원 수준에서 같은 해 12월 9조 9200억 원으로 줄었다. 개인의 매매비중도 지난해 9월까지 60%를 유지하다 12월 중순 50%대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시장도 지난해 등락을 거듭하다 조정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8일 8120만 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날 기준 5012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종합주택유형(아파트·

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63%로 지난해 10월(0.88%)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1.13%에서 0.75%, 서울은 0.71%에서 0.55%로 상승폭이 줄었다.

한편 은행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유력해지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상할 때마다 예금금리를 0.25~0.4%p 가량 올렸다.

여기에 오는 14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p 추가로 인상하면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기준금리가 최소 두 차례 오르면 은행의 예금금리도 추가로 오를 것”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많아지면서 안전자산인 은행 저축성 예금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中, ‘디지털 위안화’ 드라이브... 앱 인기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올림픽 한 달 앞두고 앱 출시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1위
디지털 통화 홍보 기회 삼아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과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내놓은 디지털 위안화(e-CNY)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올라서면서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지배했던 결제 시장을 흔들고 있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식 출시된 e-CNY 앱은 애플과 샤오미의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다.

e-CNY 앱은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등록된 계정이 시범 지역에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시범 지역은 선전, 쑤저우, 송안신구, 청두, 상하이, 하이난, 창샤, 시안, 칭다오, 다롄과 베이징, 장자커우 등으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지도 포함됐다.

시장 조사 기관인 앱 애니에 따르면 e-CNY 앱은 사용 지역이 제한됐음에도 자체 모바일 결제 기능을 갖춘 소위 ‘슈퍼 앱’ 위챗의 다운로드를 넘어섰다. 애플 스토어에서는 오픈 하루 만에 가장 인기있는 앱이 됐다.

샤오미 앱 스토어에서 지난 5일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으며, 앱 스토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다운로드된 금융 앱이 됐다. 샤오미는 구글 앱 스토어가



지난해 12월 14일 쑤저우 주민이 디지털 위안화(e-CNY) 스마트폰 앱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도통신·SCMP

차단된 중국 본토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 스토어다.

SCMP는 “e-CNY 앱의 인기는 2022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중앙은행의 법정 디지털 통화(CBDC)를 홍보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용 확대를 위해 시범 운영 도시 주민들에게는 디지털 위안화 홍빠오(紅包)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 청두 주민은 대중교통이나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때 할인을 받기 위해 이 앱을 자주 사용한다. 그는 “e-CNY로 지하철을 타면 50% 할인을 받는다”며 “e-CNY로 결제하는 것은 위챗페이 나 알리페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 베이징 거주자는 지난해 하반기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박람회에서 디지

털 위안화를 사용해 음료 등을 사먹었다.

그는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며 “베이징 전역에서 가능해진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위안화 앱이 단기간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한계도 여전하다.

디지털 위안화의 결제 회전율과 사용자 기반은 위챗페이 나 알리페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두 앱은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SCMP는 “할인이나 홍빠오 등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인센티브가 소진될 경우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쌍용차 “빠른 시일 내 경영정상화 최선”

>> 1면 ‘9부 능선 넘어’서 계속

산업은행이 ‘대출 불가’ 입장을 밝히자 에디슨모터스가 평택공장 부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이 알려지며 평택시를 비롯해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안정적인 자금 마련 역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에 따

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만큼, 조속히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 등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경제계 “노동이사제 국회법안 통과 유감”

“민간기업 적용시 부작용” 경고

경제단체들이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회는 10일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이름으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국가가 경제계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동이사제가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했지만 국내 노사관계와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의무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데, 국회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이 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그동안 재검토 필요성을 요청해왔지만 결국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으며 유감을 전했다. 대신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하며,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유감을 표하며 강성노조로 정의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사회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재용 기자 juk@

마트 출입문서 백신패스 반대 시위

>> 1면 ‘입장에만 20분’서 계속

장사에 따르면 QR체크를 위해 앱을 켜기 어려울 것을 생각해 QR을 캡처한 사진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부스터샷까지 접종했다면서 접종 병원과 통화를 하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도 있었다.

마트 안 식품코너에서 만난 이수영(52)씨는 “방역패스 때문에 입장하는데 20분은 걸린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시장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할인도 많고 편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화점·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 대상 시설이 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시행 첫날인 10일 백

신패스반대총복연대·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회원들과 함께 낮 12시 이마트 청주점에서 방역패스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마트 출입문에 서서 ‘아빠! 엄마! 백신 무서워요’라고 적힌 락을 두르고 ‘방역핑계 통제사회! 국민분열 인권말살!’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이를 만에 집객이 줄었는지를 단언키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매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